

차 례

금산군 장사수급계획(안)

I.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1
II. 금산군 장사수급 계획의 개요	6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7
1) 수립 배경	7
2) 수립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8
2. 계획의 범위	9
1) 시간적 범위	9
2) 공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III. 장사선호도 변화 및 관련 제도 검토	11
1. 장사선호도 변화	12
2. 장사관련 제도 동향	15
1) 법제도 현황	17
2) 정부정책 동향	8
IV. 금산군 장묘현황	20
1. 금산군현황	21
1) 지적현황	21
2) 인 구	21
3) 출생 및 사망	23
2. 장묘시설 현황	25
1) 묘지시설현황	25
2) 화장시설현황	25
3) 봉안시설현황	26
4) 자연장현황	27
V. 장사시설 수요 추계	28

1. 수요추계 개요	29
2. 인구 예측	30
3. 사망자수 예측	31
4. 화장자수 추정	31
5. 매장자수 추정	32
5. 유형별 장사시설 수요예측	33
VI. 장묘수급계획 운영방향	35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36
1) 계획의 목표	36
2) 추진전략	36
2.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37
1) 장사시설 재정비 및 효율적 관리	37
2) 건전장사문화정착	37
3)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책임강화	37
VII. 안정적 장묘수급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39
1. 개장요역 활용	40
2. 장사시설 수요관리 및 유인	46
3. 주민과의 상생	48
4. 맺음말	50
참고자료	52
1) 지적현황	52
2) 연도별 도내 총인구현황	52
3) 금산군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	52
4) 연도별 사망자수	53
5) 연도별 매장자수 및 매장유형	53
6) (충청남도)화장시설현황	54
7) 충청남도 화장률	54

I.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1.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

I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일반 현황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노인인구(천명) : 5,452('10) → 8,084('20) → 12,691('30)

(2) 기대수명의 연장속에 사망자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세)

남 : 78.22('15) → 79.31('20) → 80.41('25) → 81.44('30)

여 : 84.98('15) → 85.67('20) → 86.36('25) → 86.98('30)

* 사망자수(천명) : 308('15) → 357('20) → 403('25) → 453('30)

2) 국민의식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변화에 영향

(1) 국가·사회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장사문화 및 제도의 변화

(2) 국토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친환경적인 장법에 대한 관심

(3) 가족구성의 양적·질적 변화와 개인화의 영향으로 묘지 조성·관리 한계

(4) 장사수요에 상응하여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3)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선택 이유 : 사전 묘지 마련, 전통적 관습, 성묘가능, 화장반감 등
- 화장선택 이유 : 장례절차 간소, 묘지 미확보와 관리적 부담, 장례비용 절감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1년 기준 71.1%

* '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75 ~'85년 4.2% ↑ '85 ~ '95년 5.4% ↑ '95 ~ '05년 30.6% ↑)

4) 장사시설 현황

(1) '12년 8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3개(공설), 화장로 287기

(2) '11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355개소로 공설 130개소, 사설(법인, 종교단체) 225개소

(3) '11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359개소로 공설 23개소, 사설 336개소(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4) '11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 시설은 총 463개소로 공설 308개소, 사설 155개소(법인)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1)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1)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법적 실효성 제고

(2) 현행 장사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의 제도 개선 추진

- 2)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 (1) 화장시설 설치촉진 및 현대화, 화장가능 시설·지역 확대 등 화장 장려를 위하여 제도기반의 개선 및 정비
 - (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 (3) 사망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설치 관련정보의 관리 공유체계 구축
- 3)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1)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현장순회교육을 통한 장사문화 개선 및 인식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조 및 전국적 현장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장사문화 인식개선 홍보·교육
 - (3) 광고 및 관련 이벤트의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적 장사문화 홍보 및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3 주요 추진계획

- 1)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 (1)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시설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2) 자연장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사업 집중 지원
 - (3) 공설묘지는 재개발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또는 종합장사시설 조성
 - (4) 공설봉안당은 민간시설 투자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투자 축소 검토
 - (5) 첨단 화장로로 교체하여 열효율수준은 높이고 환경오염 문제 방지
 - (6) 광역화장시설 설치 우선 지원

- 2)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1)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제외)에 화장로 설치 허용
 - (2) 장사시설 공동설치기준 완화
 - (3) 자연장지 조성 가능한 지역 확대
 - (4) 화장사용료 편차개선
 - (5)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원화
 - (6) 친환경 화장용품 규격화·표준화
- 3) 장례서비스 개선
 - (1)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 (2)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 마련
 - (3) 장례용품의 강매행위 금지 규정 신설
 - (4)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 의무화
- 4) 장사정보 시스템 운영
 - (1) 장사법령 및 정책안내, 민원질의답변, 장사시설에 대한 검색서비스, 관련 장사문화 및 화장료 감면혜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매·화장 관련 민원처리
 - (3) 장사정보운영센터를 통한 맞춤형 장사상담 서비스 확대
- 5)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 (1) 모범 자연장 조성사례 및 장사시설·문화 인식개선 등 관련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
 - (2) 장사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하여 공모를 통한 시설유치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

Ⅱ. 금산군 장사수급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Ⅱ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배경 및 목적

1) 수립배경

가.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중장기계획수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법제5조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법제5조제1항)

나. 배 경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핵가족 등 가족구조 변화 및 편리성 선호 등 변하고 있는 장사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 －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원 수 등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묘지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방치 우려
 - － 전통적인 효 문화 쇠퇴 및 현대생활에서의 편리성 추구, 묘지 공간 부족 등에 따라 화장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
- 과거 지역사회에서는 묘지가 주거지와 가까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에 따라 묘지와 주거의 분리현상 심화
 - － 도시지역의 개발과 함께 대부분의 묘지가 이장되었고 묘지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문화를 가속화
 - － 2002년 33.7%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2011년 처음으로 70%(보건복지부 추정치)를 상회
- 이와 같은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사시설들이 지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화장, 납골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와 그로인한 납골시설의 공급과잉, 장묘문화의 지나친 상업주의 등 매우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남
- 또한,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의 문제도 발생

2) 수립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계획의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며 화장수요증가에 따른 장사시설의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 충청남도 장사수급계획에 따른 충남의 화장률은 '09년 44.5%, '10년 44.8%, '11년 53.7% 계속 증가
-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능동적,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 시설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발전

나. 계획의 목적

- 장묘문화의 트렌드변화, 인구고령화 등 금산군의 장사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금산군이 직면한 현안문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아울러 지역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여 장사시설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
- 특히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역과 협력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를 조성
- 장사문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장사시설의 적정공급을 도모하고 향후 시설 수급방향을 제시
- 지역별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위한 지침과 기준 제시
- 지역별 사설 장사시설 확충 관련 업무기준으로 활용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직전계획 : 2007~2011까지)

- 기준연도 : 2013년
- 목표연도 :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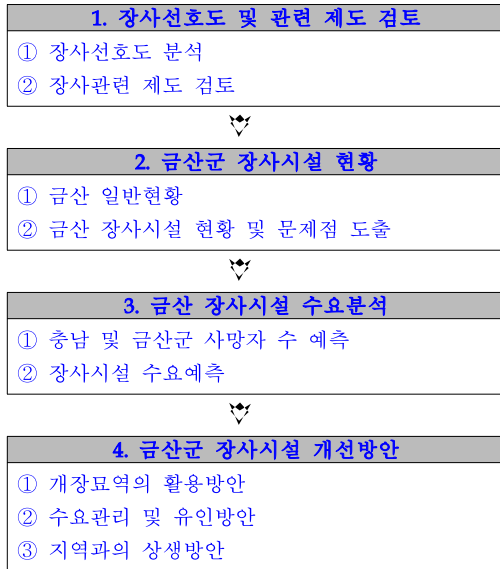
2) 공간적 범위

- 금산군 전체 576.66km²

3) 내용적 범위

-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
-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지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장사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장사시설의 수요분석 및 예측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사망자수, 화장률 등의 중장기 추세를 감안하여 과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정 수급계획 수립
- 장사시설 개선방안 제시
- 지역과의 상생방안 제시

<그림 > 계획의 체계



Ⅲ. 장사선호도 변화 및 관련 제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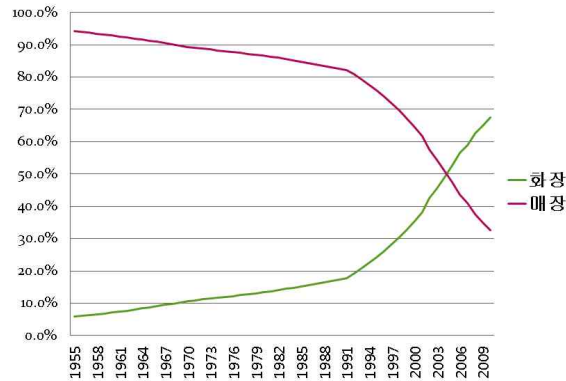
1. 장사선호도
2. 관련 제도 검토

III 장사선호도 변화 및 관련제도 검토

1. 장사선호도 변화

- 묘지(돌봄)수요 감소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로 편의주의 확산
 - 사회·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변화
- 화장수요 증가
 - 화장률의 지속적 증가 (전국 화장률 2000년 33.7%→2011년 71.1%)

〈그림〉 화장과 매장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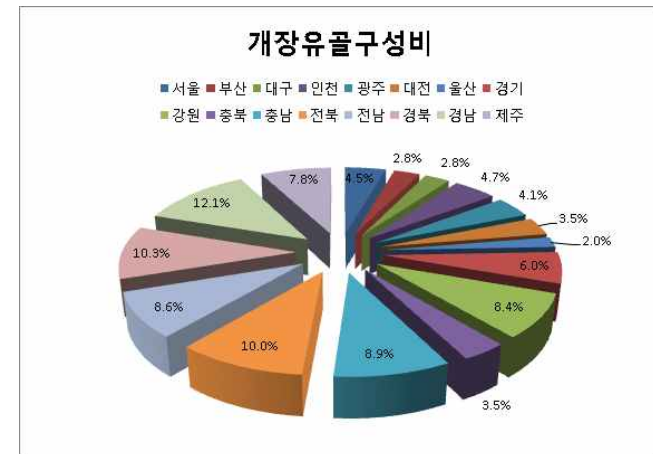
- 지역개발 및 묘지이장 등에 따른 개장수요증가(전국 총화장건수의 22.7%가 개장유골임, 충남 44.2%로 제주(75.4%) 다음으로 높음)
 - 한편, 2000년대 이후 화장한 전체 개장유골의 시도별 구성비를 보면, 경남(12.1%), 경북(10.3%), 전북(10.0%), 다음으로 충남(8.9%), 전남(8.6%), 강원(8.4%) 순으로 높음

〈표〉 지난 10년간 총화장수요와 구성비(2002-2011)

구분	총화장건수		시체		죽은태아		개장유골	
전국	1,966,616	(100.0)	1,420,429	(72.2)	98,969	(5.0)	447,218	(22.7)
서울	317,938	(100.0)	275,483	(86.6)	22,410	(7.0)	20,045	(6.3)
부산	162,219	(100.0)	146,283	(90.2)	3,241	(2.0)	12,695	(7.8)
대구	93,575	(100.0)	72,939	(77.9)	8,261	(8.8)	12,375	(13.2)
인천	122,334	(100.0)	96,185	(78.6)	5,003	(4.1)	21,146	(17.3)
광주	54,648	(100.0)	36,092	(66.0)	216	(0.4)	18,340	(33.6)
대전	70,958	(100.0)	36,383	(51.3)	19,079	(26.9)	15,496	(21.8)
울산	40,035	(100.0)	28,178	(70.4)	2,992	(7.5)	8,865	(22.1)
경기	278,899	(100.0)	241,529	(86.6)	10,493	(3.8)	26,877	(9.6)
강원	100,576	(100.0)	60,302	(60.0)	2,552	(2.5)	37,722	(37.5)
충북	63,826	(100.0)	47,351	(74.2)	656	(1.0)	15,819	(24.8)
충남	94,686	(100.0)	53,838	(56.9)	893	(0.9)	39,955	(42.2)
전북	107,521	(100.0)	60,560	(56.3)	2,369	(2.2)	44,592	(41.5)
전남	94,375	(100.0)	48,465	(51.4)	7,432	(7.9)	38,478	(40.8)
경북	136,285	(100.0)	83,526	(61.3)	6,822	(5.0)	45,937	(33.7)
경남	182,055	(100.0)	121,886	(67.0)	6,033	(3.3)	54,136	(29.7)
제주	45,999	(100.0)	11,029	(24.0)	301	(0.7)	34,669	(75.4)
미상	687	(100.0)	400	(58.2)	216	(31.4)	71	(10.3)

주 : ()내는 구성비임

〈그림〉 개장유골구성비



-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79.3%)을 선호하는 비중이 매장(15.1%)을 선호하는 비중보

다 훨씬 높으며, 5.6%는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이와 같은 선호가 실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과거의 사례를 보아 약 10년 내외에 나타날 것으로 사료

〈표〉 매장 선호도와 실제 화장률

(단위: %)

		1984	1989	1993	1994	2001	2004	2005	2009	2011
선호도	화장선호	27.0	27.1	37.4	50.1	66.9	68.6	77.8	80.4	79.3
	매장선호	69.2	71.9	69.2	49.9	33.1	31.4	22.2	19.6	15.1
	기타 (미정)	3.8	1.0	3.8	-	-	-	-	-	5.6
실측치	화장률	13.7('81)	NA	17.8('91)	NA	38.3	49.2	52.6	65.0	71.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2012). 『2012 장사업무 안내』

○ 화장 후 자연장 수요증가

-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화장 후 안치장소의 선호가 변화되고 있음
- 선호하는 유골 안치방법은 나무나 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39.9%), 봉안시설 봉안(32.7%),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골(27.3%) 등의 순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 장사관련 제도 동향

1) 법제도 현황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
 -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동법 제5조에 의하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또한,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공설묘지 조성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립 등 자연장 조성 기준 등의 내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
 - 동법 제18조에서는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점유면적을 제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합장일로부터 기본 15년, 3회연장(최장 60년)
 - 봉안묘는 안치기한에 대한 법적제한 없음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점유 면적은 10㎡,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미만 임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미만,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미만

■ 자연장

- 자연장은 용어자체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
 - 또한 자연장은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매장, 봉안과는 달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 환경 친화적 장법으로 인식
- 즉, 자연장이란 글자 그대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거나 일정한 숲이나 산림시설에 묻음으로써 골분이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장법이라고 정의
 - 자연장은 장사문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회귀의 의미를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법(이필도, 2008 재인용)
- 자연장의 방법
 - ①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깊이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됨
 - ③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함
 - ④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여야 함

■ 수목장

- 수목장은 수목을 이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수목 주위에 묻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률상 자연장의 일부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목장은 장법의 개념보다는 장소의 개념으로 수목장 조성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논의
 - 첫째, 기존 산골형태의 일종으로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
 - 둘째, 자연 상태의 대단위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목장립 형태가 제시
- 스위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립은 기존 산림내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화장한 유골을 묻어 주는 방법으로 시설물, 형질변경 등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의미
- 한편 수목장은 자연회귀 정신이 철학적배경
 - 이 경우 자연은 공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귀를 시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으로 비교해서 설명
- “수목장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한 형태로 정의

2) 정부정책 동향

- (1) 「전국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한 5개년계획('13~'17년)
- 2012년 국가에서 전국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한 5개년('13~'17년)계획을 발표
 - 장사시설 확충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화장시설은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확충
 - 봉안당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
 - 자연장지는 묘지 및 봉안당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지속 확충

- 공설묘지는 신규 설치는 제한하고, 자연장지화 추진

■ 화장시설 확충 방향

- 화장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 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 절차적 근거 마련
 -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 유도
 - '17년까지 화장로 68로 증설하고,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및 설비보완 추진
 - 화장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근거 마련

■ 봉안시설 확충 방향

- 공설 봉안시설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
 - '17년까지 239천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

■ 자연장지 확충 방향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17년까지 167천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자연장지가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
 - 2012년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현행법인

10만㎡ 이상 에서 5만㎡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5천㎡ 미만 → 3만㎡ 미만 등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

- 건축물·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개인 및 가족)의 경우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설치 가능토록 추진

■ 묘지 감축 방향

-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 유도
 -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 국고 지원 검토

IV. 금산군 현황

1. 금산군현황
2. 장묘시설현황

IV 금산군 장묘현황

1. 금산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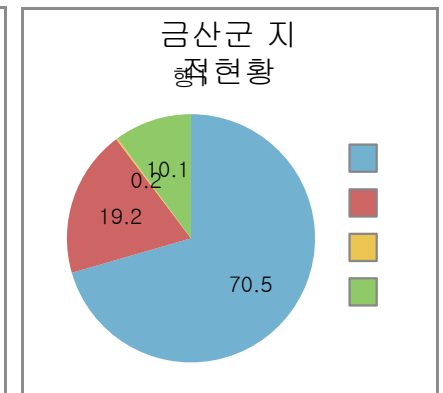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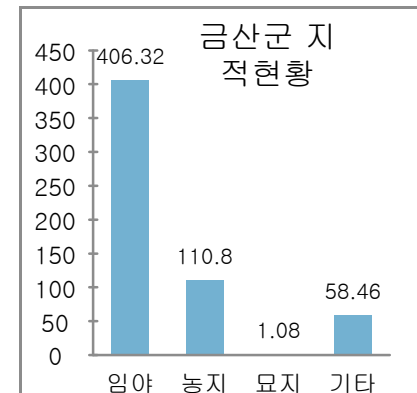
1) 지적현황

- 금산군의 지적은 2012년 기준 총576.66km²이며, 그 가운데 묘지 면적은 1.07km²로 전체지적의 0.18%를 차지하고 있다.

◆ 지적현황

(단위 : km², %)

구 분	계	임야	농지	묘지	기타
면 적(km ²)	576.66	406.32	110.80	1.08	58.46
비 율(%)	100	70.5	19.2	0.2	10.1



2) 인 구

①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권역 간 격차확대

- 전국의 인구는 2008년에 49,540천명이었으며 2012년까지 평균 0.69%씩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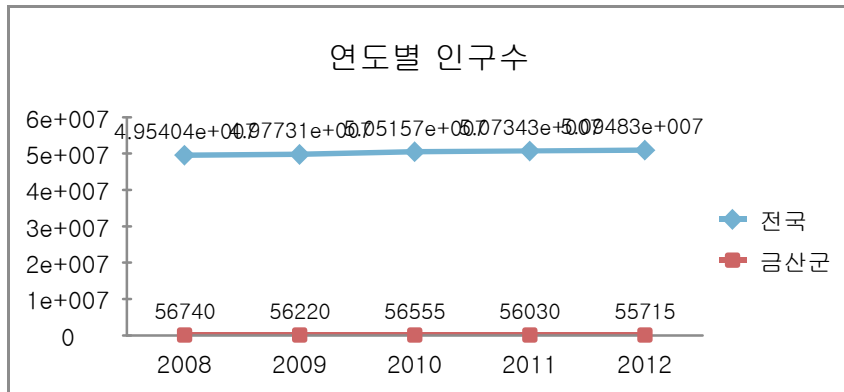
- 금산군의 인구규모는 2008년에 57,680명에서 2012년 55,715명으로 매년 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인구수

(단위: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금산군	56,740	56,220	56,555	56,030	55,715

※ 주민등록상 인구통계



② 자연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구감소

- 금산군 인구감소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감소와 지역간 소득, 고용기회, 교육 등의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감소로 설명될 수 있음.

③ 초 고령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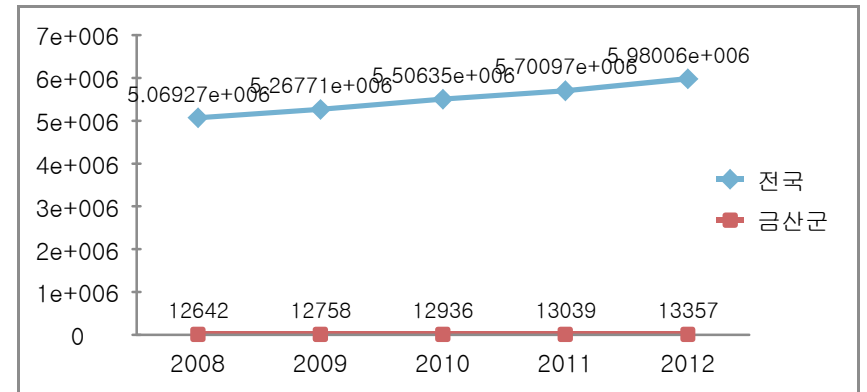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의 경우 2012. 12. 31.기준 13,357명으로 전체인구수(55,715명)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음.

◆ 65세 이상 인구수

(단위: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5,069,273	5,267,708	5,506,352	5,700,972	5,980,060
금산군	12,642	12,758	12,936	13,039	13,357

※ 주민등록상 인구통계(행정안전부 통계자료)



3) 출생 및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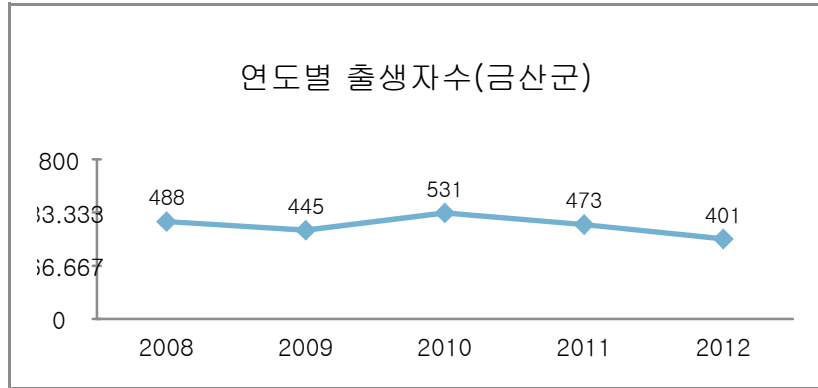
① 출 생

- 금산군의 출생자수는 2008년 488명에서 2009년 445명, 2010년 531명, 2011년 473명, 2012년 401명으로 한 해 평균 출생자수는 468명임

◆ 출생자수

(단위: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인 원 수	488	445	531	473	401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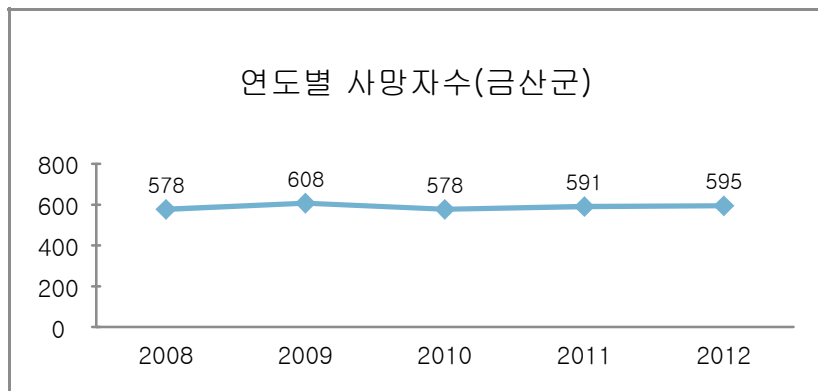
② 사 망

- 금산군의 사망자수는 2008년 578명에서 2009년 608명, 2010년 578명, 2011년 591명, 2012년 595명으로 한 해 평균 사망자수는 590명임

◆ 사망자수

(단위: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인 원 수	578	608	578	591	595	590



2. 장묘시설 현황

- 일반적으로 장묘시설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으로 크게 구분됨
 -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됨.
 - 개인묘지의 경우 현황자료의 수집이 어려우며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개인묘지 현황은 제외함.
- 봉안시설은 봉안당과 봉안묘, 그리고 봉안탑으로 구분되며, 공설봉안당과 사설 봉안당으로 분류
- 화장장은 공설화장장과 사설 화장장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사설화장장은 주민의 반대와 사설화장장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임.

1) 묘지시설 현황

- 금산군의 공·사설공설묘지는 2012년 현재 총121개소로, 이중 사설묘지 121개소가 있으며 공설묘지는 없는 상태이다.

연번	묘지종류	운영주체	개소수	면적(㎡)	비고
계			121	283,197	
1	법인묘지	(재)평화공원묘원	1	260,565	
2	종중묘지	경주김씨○○파 문중 등 36개 문중	36	19,189	
3	가족묘지	김○○ 가족 등 84가족	84	3,443	

2) 화장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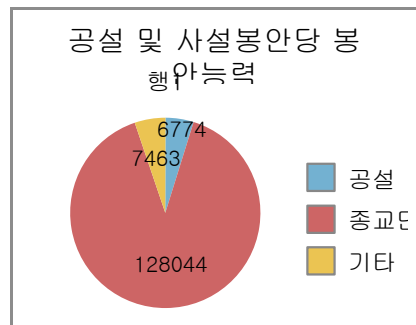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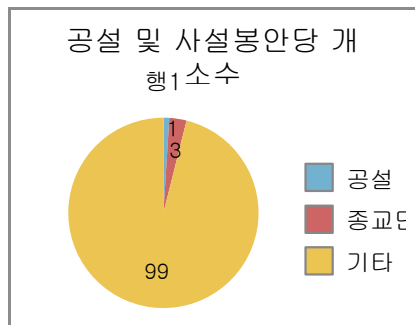
- '11년 현재 금산군 화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충청남도에는 2개소(공설2)로 천안추모공원, 홍성추모공원이 있으며, 2013년부터 공주시 추모공원인 나래원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화장시설(공설)

시군	화장시설명	운영주체	설치년도	시설규모		화장로수
				부지(㎡)	연면적(㎡)	
계	3개소			281,044	12,053	19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천안시	2010	2,824	5,026	8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	1978	32,120	3,944	8
공주시	나 래 원	공주시추모공원관리사업소	2013	246,100	3,083	3

3) 봉안시설 현황

- 금산군의 공·사설봉안시설 2012년 현재 총103개소로, 이중 공설 1개소, 종교단체 3개소, 기타 99개소가 있으며 총 봉안능력은 142,281구로 공설 6,774구, 종교단체(사설) 128,044구, 기타(사설) 7,463구이다.



◆ 공설봉안당

시 설 명	위 치	설치 년도	총봉안 (구)	기봉안 (구)	향후봉안 (구)	비고
금산군공설봉안당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202-1	1998	6,774	776	5,998	

◆ 종교단체 봉안당

연 번	시 설 명	위 치	관리주체	설치년도	총봉안 (구)	기봉안 (구)	향후봉안 (구)
계	3개소				128,044	38,160	89,884
1	일불사일리지움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외 2필지	한국불교태고종일불사	2002	121,390	38,108	83,282
2	성심사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214-11	한국불교태고종성심	2005	450	32	418
3	만인산만인사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197-1	한국불교법륜종만인	2006	6,204	20	6,184

4) 자연장 현황

- 금산군내 자연장지는 2012년 현재 모두 2개소이며 소규모 중중 자연장지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 자연장 현황

연 번	명 칭	위 치	조성자	설치년도	총자연장 능력(구)	기자연장 구수(구)	향후자연장 가능(구)
계	2개소				200	1	199
1	충중자연장지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204번지	박래열	2009	100	1	99
2	충중자연장지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868-1	박노복	2009	100	-	100

V. 장사시설 수요 추계

1. 수요추계 개요
2. 인구예측
3. 사망자수 예측
4. 화장자수 추정
5. 매장자수 추정
6. 유형별 장사시설 수요예측

V 장사시설 수요추계

1. 수요추계 개요

1) 장사시설 수급추계의 기본원칙

- 수급추계 대상기간은 2013 ~ 2017년(5년간)
- 수급추계 대상 장사시설은 화장시설(화장로), 묘지시설(집단묘지, 봉안시설(봉안당), 자연장지
- 수급추계방법은 2011년 이전 5년간 자료를 분석하고
- 장래의 잠재적 이용수요와 현재 공급능력을 비교하여 과부족 상태를 추계

2) 장사시설 수급추계 방법 및 절차

- 1단계 : 인구 및 사망자 추계
 - 장사시설 수요예측은 인구 및 사망자 발생에서 비롯됨으로 통계청 발표 충남도 인구 및 사망자 추계 자료를 활용
- 2단계 : 매장 및 화장수요 추계
 - 사망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자중 화장자수 즉, 화장 수요는 과거 5년간 자료를 분석하고, 장례문화 개선에 따른 화장률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수요추계
- 3단계 : 장사시설 유형별 수요추계
 - 매장수요는 묘지시설 수요, 화장 수요는 화장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요 자료로 활용
- 4단계 : 장래의 장사시설별 수급 추계 인구예측

2. 인구 예측

- 지역의 인구규모 변화는 지역경제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로부터 제반 물리적 시설계획의 규모는 도출됨
- 지역의 인구규모 예측을 위한 방법론은 다양함
- 금산군의 경우는 인구추계로 볼 때 증가요인들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구예측지표가 장사시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평균 인구감소율(0.67%)을 적용한 향후 5년간의 금산군의 인구 추계 및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연도별 인구추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 국	50,423,955	50,617,045	50,801,405	50,976,519	51,140,690
금산군	55,307	54,669	54,302	53,938	53,577

2) 금산군의 인구변화 추이

－분석－

- 1960년 인구통계작성 시점 : 111,929명
- 1974년 우리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 : 125,607명
 - － 1984년 10만대 인구변화 : 98,854명
 - － 1994년 7만대 인구변화 : 69,826명
 - － 2007년 6만대 인구변화 : 57,690명
-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 감소 : 대도시 취학, 취업 등으로 전출
- 2000년 이후 인구 감소세 크게 둔화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인구 감소율 : 0.67%

3. 사망자수 예측

1) 충청남도 사망자수 예측 결과

(단위:천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 국 (단위 : 천명)	289	299	308	319	328
충 남 (단위 : 천명)	15	16	17	17	18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2011)

2) 금산군 사망자수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산군의 연도별 사망자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 원 수	578	608	578	591	595

- 금산군의 연도별 사망자 수는 증감이 일정치 않아 평균값인 590명을 적용하면, 향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상 사망자 총합은 2,950명으로 추산됨

4. 화장자수 추정

1) 충청남도 및 금산군 화장율

- 충청남도가 집계한 2011.12.31.의 충청남도의 화장율은 다음과 같음

(2011.12.31.현재)

(단위:명)

구 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충청남도	14,025	7,531	53.7

2) 충청남도 및 금산군 화장자수 추계

○ 2011.12.31.의 화장율을 적용한 향후 5년간의 화장자수

(단위: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충청남도	8,055	8,592	9,129	9,129	9,666	44,571
금 산 군	317	317	317	317	317	1,585

* 충청남도는 향후 사망자수 추계에 2011년말의 화장율 53.7%를 적용하였음.

* 금산군은 2008년~2012년의 사망자의 증감이 일정치 않아 평균 사망자수 590명의 2011년말 충청남도 화장율 53.7%를 적용하여 향후 5년간의 화장자수를 추계함

5. 매장자수 추정

1) 충청남도 매장자 수 및 매장유형

○ 충청남도의 장사 수급계획에 따른 충청남도의 2007년 ~ 2011년 매장자수 및 유형은 다음과 같음

(단위:구)

구 분	연도별	계	개인묘지	집단묘지		
				공동	공설	법인
충청남도	계	31,455	15,868	783	4,804	10,000
	2,007	6,565	3,166	97	830	2,472
	2,008	6,719	3,267	117	890	2,445
	2,009	6,360	3,152	221	1,101	1,886
	2,010	5,869	3,158	164	974	1,573
	2,011	5,942	3,125	184	1,009	1,624

2)금산군 매장자 수 추계

○ 금산군의 평균 사망자수 590명을 적용하고, 금산군의 화장율 53.7%를 감안하면, 향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상 매장자 총합은 1,365명으로 추산됨

6. 유형별 장사시설 수요예측

- 장사시설의 유형은 매장을 위한 묘지와 화장을 위한 화장시설, 화장 후 봉안을 위한 봉안 시설로 구분됨
- － 매장시설 : 공설묘지, 사설묘지, 공동묘지
- － 화장시설
- － 봉안시설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 － 자연장지 :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1) 매장시설

- 금산군의 경우 매년 5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율 53.7%를 감안하면 매장을 원하는 경우는 매년 273여명 수준이고, 향후 5년간 1,365명이 매장을 할 것으로 추산됨
- 이 경우 금산군 내 사설법인묘지인 평화공원의 매장잔여 기수가 8,000여기 이므로 공설묘지, 사설 법인묘지 등의 매장시설의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2) 화장시설

- 금산군과 인접한 화장시설(대전, 청주, 홍성, 천안, 김천) 4개소에는 화장로 33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장시설의 수요는 없다고 판단됨

3) 봉안시설

- 금산군의 경우 매년 5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율 53.7%를 감안하면 화장을 원하는 경우는 매년 317여명 수준이고, 향후 5년간 1,585명이 화장을 할 것으로 추산됨
- 현재 금산군 내에는 공설 봉안당 1개소의 잔여기수 약6,000기 및 사설 봉안당 3개소의 잔여기수 약 90,000기이므로 봉안시설은 공급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요 예측 상 추가로 설치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됨

VI. 장묘수급계획 운영방향

1.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V 장묘수급계획 운영방향

1.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1) 계획의 목표

□ 선진 장사문화 선도

- 매·화장에 관한 주민의식 및 사회관습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기존 매장중심의 관행에서 화장위주의 관행으로 유도

□ 주민친화적인 장사행정 구현

- 장례거행시 군민들이 겪어야 할 비용부담 및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

2) 추진전략

□ 장사시설 재정비 및 효율적 관리

- 장사시설 유형별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초과공급 상태임
- 따라서 수급계획 기간 내에 장사시설의 추가적인 확충보다는 재정비 및 효율적 관리가 바람직함

□ 건전 장사문화 정착

- 화장위주의 장사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화장문화 확산운동을 추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에 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장사법제 관련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수단 강구

□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책임 강화

- 장사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과 화장유도를 위한 지원책 강구

2.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1) 장사시설 재정비 및 효율적 관리

□ 방치된 공동묘지의 재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 공동묘지 재정비계획 수립
 - － 금산군의 향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수급체계상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묘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집행
 - － 계획수립시 자연장 제도 도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구·검토

□ 추가적인 봉안시설 설치 불허

- 수급계획기간 내 봉안시설의 수급상태는 초과공급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신규조성은 불허하여야 함

2) 건전장사문화 정착

□ 지속적인 화장문화 확산 추진

- 화장문화 확산운동 전개를 위한 방안
 - －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 화장 비용 지원 방안 강구

□ 장사법제 관련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수단 마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유관법령 등에 관해 교육 및 홍보수단이 미약하여 주민들의 위법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 장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법 적용과 해석으로 지역주민에게 장사법 준수를 지도하여야 함
 - － 장사법제에 대하여 공무원교육, 학교교육, 기업 및 직업교육, 사회교육,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3)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책임 강화

- 화장장려금 지급
 - － 지역 내에 화장시설이 부재하여 인근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

□장사 관련 데이터 구축

- 장사시설 데이터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영역별로 나누어 구축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분기별, 연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사시설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통계들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 인사이드이 잿은 조직 특성에 따라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글 마련하여야할 것임

VI. 안정적 장묘수급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1. 개장묘역 활용

2. 장사시설 수요관리 및 유인

3. 주민과의 상생

VI 안정적 장묘수급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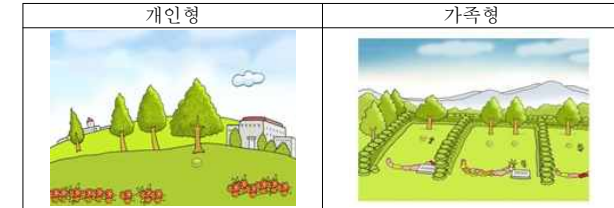
1. 개장묘역 활용방안

1) 개장묘지 자연장 이용

- 일반적으로 개장 묘역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요만 있다면 새로운 묘지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대안
 - 수도권외의 경우 개장묘역의 재사용도 가능하나, 금산군의 경우 인근 추모공원의 묘지공급이 충분하여 재사용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개장묘역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기존 시설활용도를 높여가야 할 것임

(1) 자연장 이용 방안

- 자연장(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 직접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땅에 묻어야 함
 - 개장 묘역을 정비하여, 기존 묘지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장으로 활용
 -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배려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 가능



■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 비율 준수 의무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속적인 매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설묘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신규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용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수행에 어려움 예상
 - 그리고 공설묘지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매장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때문에 매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
 - 그나마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에 비하여 일정면적 안에 집약적으로 골분을 안장할 수 있어 공설묘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식재과정을 거칠 경우 기존 공설묘지의 재활용도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공설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비율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
- 장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수목장립 포함) 등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 기준을 마련
 - 그런데 각각의 설치 및 조성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시설의 배분비율에 관하여는 미언급
-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봉안시설이나 묘지를 이용할 것이므로 시설의 점유비율이 큰 의미가 없으나, 자연장 제도

1) 예산군. 2013. 예산군추모공원 개선 방안. 참조

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장시설별 점유비율에 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 공설묘지를 묘지가 아닌 자연장지 중심으로 구상할 경우 보다 많은 수의 분골을 안장할 수 있으며, 묘지의 형태가 아닌 녹지 공원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음

② 개선 방안

- 공설묘지 등의 신설시 자연장지 조성 면적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함
 - 그리고 동시에 분묘조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분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용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에 한정하고 상석이나 석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 신규공설묘지는 매장묘역과 자연장지구역으로 구분하며, 자연장지구역은 분묘보다 낫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잘 꾸미도록 함
 - 이는 공설묘지내에서 분묘보다는 자연장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주 외 문상객들이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사유지의 개인·가족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함
 - 그리고 자연장지구역은 다시 개인·가족 구역과 집단 자연장지구역을 구분토록 하고, 개인·가족 구역은 집단구역보다는 면적을 조금 넓게 배분하며, 추후 가족이 동지역을 선택하여 안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함
- 집단자연장지 구역은 무연분묘나 설치기간종료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 활용토록 하며, 안장밀도를 개인·가족 구역보다 높이고 구분 없이 안장토록 하여 공설자연장지 본래의 기능을 살리도록 함
 - 개인·가족이 자연장하는 경우도 분묘설치와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미적으로 나은 모습을 갖춰야 함

- 자연장 문화가 스스로 형성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묘보다 자연장이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자연장지를 잘 꾸며야 함

-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경우에도 자연장지 중심으로 개발함
 -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나 무연분묘를 중심으로 개장해 나가며, 기존 개장묘역은 매운 후 식재과정을 거쳐 수년이 지난 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와 무연분묘 처리시 자연장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설치기한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며,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하지 않을 경우, 공사설묘지 설치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자는 행위 시 사전에 연고자에게 고지 또는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 임. 따라서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장사법 20조)
 - 무연분묘의 처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장은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임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나 무연분묘는 화장후 봉안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음
- 기한종료 분묘나 무연분묘는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와는 상황이 다름

② 개선 방안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경우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며, 연고자가 나타나서 골분을 추스르고 싶으면 묻은 지역에 가서 흙과 함께 담아가면 될 것으로 판단 됨
- 기한종료 분묘나 무연분묘는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방안은 봉안기간 종료 후 어차피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단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자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임
- 봉안기간 만료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장은 유골을 있는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치자가 처리 시는 봉안 전에 이미 화장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연고자가 유골을 그대로 봉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연고자 스스로 화장 후 자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집단매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를 삭제하고 자연장해야 한다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분묘, 봉안묘·탑에 있어서의 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장사법상 분묘 및 봉안묘·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1개 또는 1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물상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자연장에 비해 과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 임
- 자연장이 활성화되어 주도적 장사방법으로 정착된다 하더라도 분묘나 봉안묘·탑도 일정수준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전 국토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여전히 늘어갈 것임
 - 그리고 한번 설치된 시설물은 최대 60년 동안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있어 자연장과외형적 차이를 축소하는 의미 뿐 아니라 기존 분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매장이나 봉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장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개선 방안

- 개선방안으로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폭 줄여 비석 또는 상석1개로 제한함

2) 개장묘역 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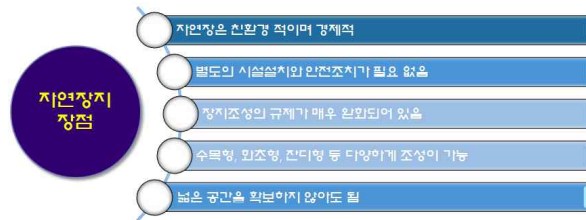
- 개장묘역을 정비하여, 기존판매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개장묘역을 재판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개장묘역의 경우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장묘역을 말끔하게 정비하고, 기존가격대비 할인하여 판매한다면 재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2. 장사시설 수요 관리 및 유인방안

1) 초과수요 관리

-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계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바 초과수요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부지를 확보하여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은 부지확보에 따른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상존
- 다른 초과수요 대응방안은 묘지수요를 화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임
 - 이는 묘지수요를 화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대응방안이나, 묘지수요를 화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묘지수요를 화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금산군의 노력이 필요함
- 묘지수요를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산군이 다양한 유인책을 갖추어야 할 것임

〈그림〉 자연장의 장점



2) 관리운영 및 적극적 홍보

- 장사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효율적 관리
 - 장례관련 전공자 전담공무원으로 채용
- 지역주민과 추모공원 이용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 지역주민 인센티브 대안으로 접근(공원내·외에서 특산물판매, 축제, 전시회 등)

○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 관리운영

- 기존 장사시설의 친환경관리, 재개발
- 환경친화적인 장사방법 실천

○ 추모공원 홈페이지의 적극적 활용

- 인터넷 공간을 통한 유족, 친지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사문화 환경조성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확인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운영(예, 꽃 배달 등)

〈그림〉 금산군 장사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3. 지역과의 상생방안

1) 추모공원의 공익성 홍보

- 군운영 장사시설의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인근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따라서 군운영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공익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사시설의 인식 및 이미지 개선

- 군운영 장사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장사시설과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음
 - 장사시설은 외지인의 방문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등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과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원조성, 환경미화,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 등 지속적인 이미지개선 노력이 필요

3) 추모공원 운영계획의 투명화

- 장사시설 부지 및 시설확대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함께 일자리확대, 부수입, 마을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음
 - 장사시설에 따른 적절한 보상수준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사업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장사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확대를 결정할 때는 마을주민들과 충

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마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운영 및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마을에 공개하고 협의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음

4) 마을과의 소통강화

-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은 마을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향후 부지 및 시설확대, 인센티브 등 협상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직접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함
 - 마을투표나 마을대표를 구성하기 전에 마을이장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마을주민들과의 협상에 있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5) 마을과 상생방안 마련

-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장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이 점점 심화될 수 있는바 마을보상수준과 보상방법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 보상수준과 보상방법을 결정할 때는 특히 마을대표 및 마을주민들과의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

4. 맺음말

계획 수립 과정중 나타난 몇 가지 정책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함

1) 추가장사시설 설치 불허

- 금산군의 인구변화, 사망자수, 화장자수 및 화장율 등을 고려할 때 화장시설, 공설묘지 및 사설법인묘지, 공·사설 봉안당, 수목장림, 공설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의 신설은 수요 예측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기존 허가 또는 신고 지역내에 봉안시설 및 자연장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2) 공동묘지 재개발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연장 제도 도입

-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공동묘지 재개발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연장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3) 화장장려금 지급

- 장사문화 개선과 직결된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 금산군 조례 개정을 통하여 타지역화장시설을 이용할 시에 금산군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화장시설 이용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4) 불법묘지 이용 억제

- 금산 군민들이 사망 시 불법묘지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여야 함

5) 공설봉안당의 효율적 활용방안

- 금산군내에는 사설 봉안당이 공급초과일 뿐 아니라 일불사가 금산군민에게 무료로 봉안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설봉안당의 증축의 필요성은 없으며, 향후 이용수준을 감안하여 공설봉안당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임

6) 장사시설 운영자, 행정기관·주민·연구 단체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협조체제가 강화 될 필요성이 있음

- 상호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자생단체인 (가칭)금산군장사시설 운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참 고 자 료

지 적 현 황

(‘12.7.1기준)

(단위 : km²)

구 분	계	임야	묘지	농경지	기타
면 적	576.7	406.1	1.1	110.8	58.7

연도별 금산군 총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인원수	57,740	56,220	56,555	56,030	55,715	

금산군 65세이상 노인인구현황

<2012.12.31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인구	65세 이상			비고
		계	남	여	
인원수	55,715	13,357	5,355	8,002	고령화율 24%

※노인인구수는 내국인만 포함

연도별 사망자수

<2011.12.31.현재>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사망자
인원수	578	608	578	591	595	590

연도별 매장자수 및 매장유형

(단위:명)

구 분	연도별	계	개인묘지	집단묘지		
				공동	공설	법인
인원수	계	2,409	2,409	-	-	0
	2,007	486	486	-	-	0
	2,008	462	462	-	-	0
	2,009	486	486	-	-	0
	2,010	462	462	-	-	0
	2,011	513	513	-	-	0

(충청남도) 화장시설 현황

<2011.12.31현재>

(단위:㎡,기)

시 군	시설명	운영 주체	위 치	설치년도	부지 면적 (㎡)	화장 로수	2011년 실적			
							계	시체 (성인)	죽은 태아	개장 유골
합 계					34,944	16	11,910	7,675	72	4,163
천안시	천안추모 공원화장 시설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569외41필지	2010	2,824	8	5,216	3,839	42	1,335
홍성군	홍성군 추모공원	홍성군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	1978	32,120	8	6,694	3,836	30	2,828

연도별 출생자수

(단위 : 명)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인원수	488	445	531	447	401	468

충청남도 화장률

<2011.12.31현재>

(단위 : 명,건,%)

구 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충청남도	14,025	7,531	53.7